

# 광주체육중 여자 배구 금메달 恨 풀었다



지난 26일 인천 인하대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전 여중부 배구 준결승전에서 광주체육중이 경남 경해중과 경기를 치르고 있다. 광주체육중은 경남 경해중과 인천 부평여중을 차례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김주향·양유민 쌍포, 지난해 준우승 아쉬움 날려

### 인천 부평여중 2-0 꺾고 전국 제패...올해 3관왕

광주체육중학교(교장 김성남) 여자 배구가 쌍포 김주향과 양유민을 앞세워 전국소년체전을 제패했다. 이로써 광주체육중은 올해 태백산배·삼성화재배 우승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육중은 27일 인천 인하대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대회’ 배구 여중부 결승전에서 인천 부평여중을 2-0으로 제압,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중은 첫 세트에서 25-13, 둘째 세트에서는 25-11로 대파했다. 이날 경기는 장신 쌍포가 주

도했다. 181cm의 주포 김주향(3년)은 24점(공격 19점, 블로킹 5점)을 득점해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180cm의 양유민(2년)도 20점(공격 14점, 블로킹 6점)을 득점했다. 이들은 중학생답지 않은 힘과 탄력이 강점이다. 특히 큰 키와 탄력으로 공격타점이 높아 위협적이다는 평가다. 세트 김가연(2년)도 폭넓은 안목과 안정된 배급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장인 정경은(3년)은 탄

탄한 기본기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광주체육중은 1회전에서 대전 신탄중앙중을 2-0(25-4, 25-16)으로, 2회전에서도 서울 세화여중을 2-0(25-14, 25-11)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경남 경해여중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2-1(25-13, 20-25, 15-7) 집전 끝에 제압했다. 김일성 광주체육중 배구 감독은 “지난해 소년체전 준우승의 한을 풀게 됐다”며 “기초체력 위주의 동계훈련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전남 선수단 결산

### 광주, 금 20개 6년만의 최고 성적...전남, 금 22개 한계단 올라 10위

#### 사이클 정설화·양궁 김건우·펜싱 김정미·배구 김주향 등 MVP

광주·전남 선수단은 24~27일 인천 일원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소년체대회’에 1900여명이 참가해 나흘간의 열전을 펼쳤다.

광주는 당초 목표보다 금메달을 5개 더 수확하며 전국소년체전 6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존의 강세 종목인 수영 등 19개 종목에서 고르게 메달이 나오면서 광주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전남은 목표했던 금메달 25개를 채우지 못하고 22개에 그쳤다. 메달밭을 기대했던 육상·태권도·유도·롤러 등에서 부진한 탓이다. 다만, 금메달 순위는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해 아쉬움을 달랬다.

◇광주 금 20개...6년만의 최고 성적=광주는 금메달 20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29개 등 모두 70개의 메달을 따냈다. 이는 금메달 순위를 기준으로 12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다. 지난 2008년(금메달 21개)이후 6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단체종목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봉산소프트볼은 결승에서 월드컵게임으로 전국 최강의 면모를 발

휘해 대회 4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효동초 핸드볼은 1994년 소년체전 남여 동반 우승 후 2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육중 배구는 지난해 준우승의 한을 푸는 기쁨을 토했다.

최고 효자종목은 금메달 5개를 수확한 수영이었다.

평영의 기린아 남상이(광주체육중 2년)와 다이빙의 신데렐라 오하늬(화정남초 6년)가 열악한 훈련 여건을 극복하고 2관왕에 올랐다. 박정민(광주체육중)도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통적으로 강세종목인 양궁에서는 형예진(동명중 3년)이 2관왕을 차지했고, 박연경(광주체육중 2년) 30m에서 금빛 과녁을 쏘았다.

태권도에서는 노한울(광주체육중 3년)·박혜진(일동중 3년)·서호진(상무중 3년)이 금빛 발차기를 선사했다. 레슬링에서 김다현(송정중 3년)·권정민(광주체육중 3년)이, 씨름에서는 광주체육중의 김태하·유정훈(3년)이 금메달을 수확했다.

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은 “이번 대회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성적 향상을 위해 조등체육의 저변 확대와 육상·체조·수영 등



27일 인천 정화여고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소년체전 펜싱여중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화순제일중 펜싱부 선수단·김은선·김정미·차정민(왼쪽부터). <전남체육회 제공>

기본종목 육상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 금 22개...한계단 오른 10위=전남은 금메달 22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6개 등 총 77개를 획득했다. 작년보다 금메달이 1개 줄었지만, 순위는 10위로 한계단 상승했다.

사이클에서 정설화(3년)를 주축으로 한 나주다시중이 금메달 4개를 쓸어들렸다. 역도에서는 임진강(완도중 3년)이 3관왕에 올랐고, 롤러 임소리(안산중 3년), 양궁 김건우(일로초 6년), 사이클 김승이

(나주다시중 1년)·추수빈(〃 2년), 수영 오주휴(광양중마초 6년) 등 5명이 2관왕을 차지했다.

이 중 사이클의 정설화와 양궁 김건우, 펜싱 김정미(화순제일중 2년)는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뽑혔다.

정서희(광양백운중 2년)는 육상 멀리뛰기에서 5m86을 날아 전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유도 김은총(무선중 3년), 태권도 박근동(광양중동중 3년)이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한 전남체육중

과 다메달을 기대했던 육상·태권도·유도 등에서 부진해 목표했던 금밭을 일구지 못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스포츠과학센터를 활용해 선수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관리를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또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다메달 종목인 수영·체조·역도·레슬링·씨름·양궁·사격·롤러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아라·유해원 활약 한국 배드민턴 세계 3위

<화순군청>

화순군청 소속의 고아라·유해원이 세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단체전 3위를 견인했다.

고아라·유해원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인도 뉴델리 시리 포트 경기장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여자단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우버컵)’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국제배드민턴연맹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고아라·유해원은 여자단체 X조 2차전에서

호주의 재클린 구안과 그로냐 서머빌을 각각 21-4, 21-6으로 눌러 한국 여자배드민턴의 본선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어렵게 3위에 그쳤다”면서 “앞으로 체력과 실력을 더 길러 일본·호주·인도네시아 오픈 시리즈에서 반드시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 전국생활체육 8월 22일 개막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8월22일부터 사흘간 속초와 양양 등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4월 말에 열린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지역생활체육회 등과 협의한 결과, 8월이 개최 시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10월에 시작하는 세계한민족축전, 전국체육대회 등을 고려해 이 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